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12. 22

주간 달러/원 동향(12/15~12/19)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AI 투자 불안 등 뉴욕증시에서의 위험회피 심리 반영되며 환율은 상승 출발했으나,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속에 하락 전환. 이어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연장 등 시장 안정 조치 발표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된 영향에 1,470원대 후반 수준으로 상승
- 중반, 수급적으로 달러 매수세가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달러 반등하자 1,482.1원까지 고점 높였으나 당국 경계감 강화되면서 오름폭 일부 반납
- 후반, 달러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에도 정부의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 발표 등 강력한 환율안정 의지 부각되자 추가 하락. 이어 주 후반,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순매도에도 스무딩 오퍼레이션 언급 등 당국 개입 경계감에 상단 제한된 가운데 1,470원대 중반에서 정규장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76.0	1482.1	1468.0	1476.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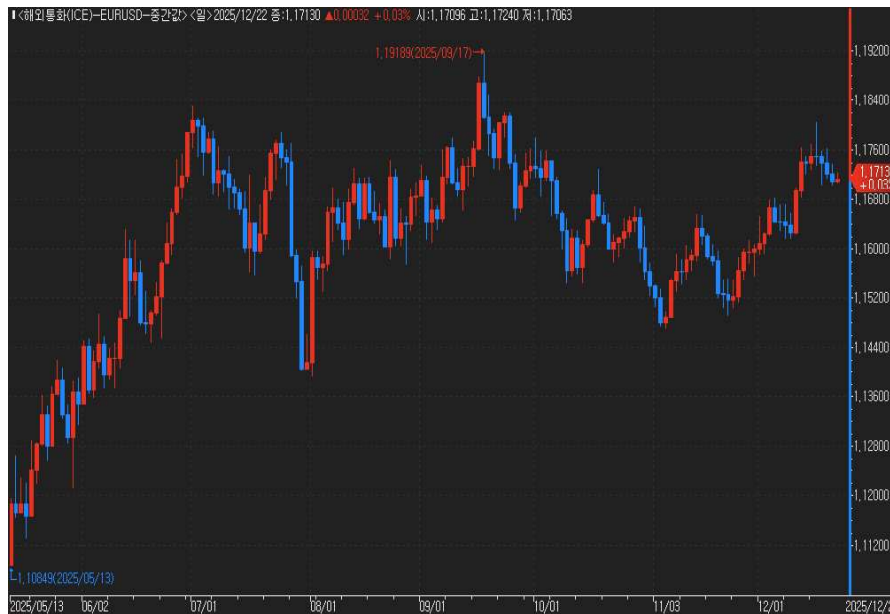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 환율은 당국의 강한 환율 안정 의지 속에 1,470원대 등락 흐름 이어갈 전망
-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달러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등 수급 쏠림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다만,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화를 위해 여러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환헤지 경계감도 높아지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상단 인식이 보다 견고해질 것으로 보임
- 이에 상단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기업들의 고점 매도물량이 유입될 경우 상승 압력 완화될 것으로 보임

예상거래범위

1,465원 ~ 1,48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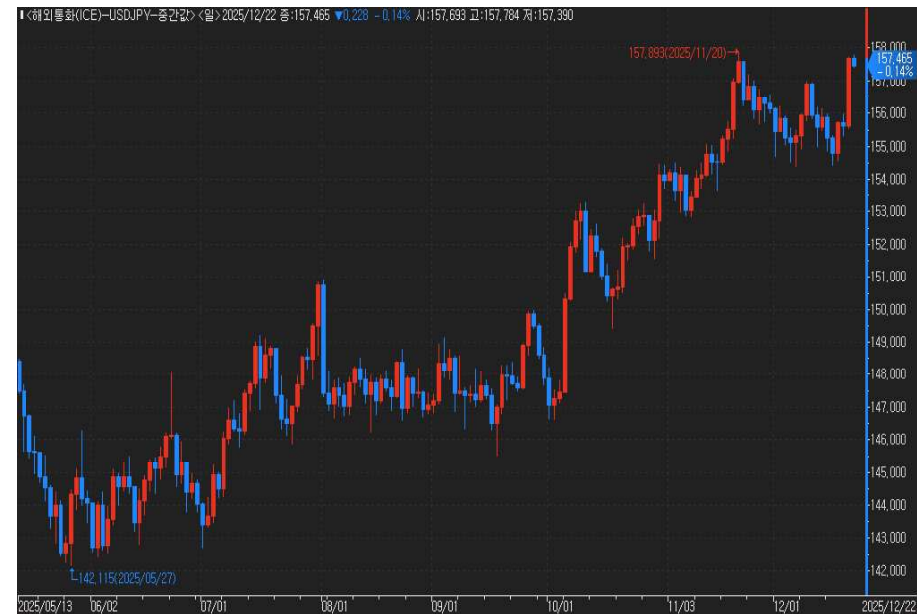
유로·엔화 동향 (12/15~12/19)



유로화 동향

- 주초, 연준은 추가 금리인하에 나선 반면, ECB는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통화정책 차별화 부각되며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 출발. 이어 독일 12월 제조업 PMI가 47.7로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위축세 이어지자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약세로 전환
- 중반, 월러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달러 약세 나타났으나, 독일 기업환경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기업 경기 전망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에 약세 흐름 지속
- 후반, ECB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동결 결정했으나, 시장이 기대한 매파적인 시그널은 없었다는 평가에 약세 폭 확대됨. 이어 주 후반, 독일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이 전월대비 악화되었다는 소식에 약세 보이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739	1.1804	1.1703	1.1710	-0.0029



엔화 동향

- 주초, AI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부각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 유입되면서 엔화는 강세 출발. 이어 미 11월 실업률이 예상과 달리 4.6%로 상승했다는 소식에 미 국채금리 하락하자 달러 대비 강세 시현
- 중반, 12월 금정위에서의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되었으나 이후 추가 인상 속도는 여전히 더딜 것이란 예상 속에 약세로 전환
- 후반, 월러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한 달러 약세와 BOJ 금리결정을 앞둔 관망세 등이 반영되면서 소폭 강세. 이어 주 후반, BOJ가 시장 전망대로 25bp 금리인상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자 엔화가 가파른 속도로 절하되며 157 엔대로 급등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5.9	157.7	154.4	157.7	+1.8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15~12/19)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미 국채금리는 FOMC에서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나타냈던 참가자들의 언급에 따라 장기금리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국고채 금리는 투자자들의 일부 손절성 매수세 유입 등으로 급락 출발. 이어 연말에 따른 국고채 장세 속 국채선물 만기에 따른 변동성 확대 속에 소폭 하락 추세 지속한 국면
- 중반, 11월 미 고용보고서의 예상 웃돌은 고용보다도 실업률 상승에 주목하는 분위기 반영에 따라 미 국채금리가 하락 양상 나타낸 가운데 국고채 금리는 환율 1,480원 상회에 따라 경계감이 확대된 양상. 그러나, 이후 한은 총재 물가 설명회에서 비둘기 발언이 반영되며 혼조세 시현
- 후반 들어, 국내 기관 국채 매수 영향으로 하락 전환한 국고채 금리는 주 후반, 미 CPI가 예상보다 크게 나옴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을 반영하였지만, BOJ의 금리인상 소식에 국고채시장 약세폭 확대 속 금리 상승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미국 AI 고평가 논란 재점화 속에 이후 잇따라 발표될 경제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코스피는 큰 폭 하락 출발. 이어 뉴욕 금융시장에서의 기술주에 대한 회의론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간 무역 합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 하방 압력 강화하며 큰 폭 하락 추세 지속
- 중반 들어, 미국 뉴욕금융시장의 AI 버블 논란 속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심리에도 대내적 반도체 업종 상승세 속에 전일 급락분 상당 부분 만회 양상 시현
- 후반 들어, 뉴욕 증시에서의 오라클發 부진 소식 등으로 급락한 코스피는 이후, 마이크로 실적 기대와 연준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는 월러 이사 의 비둘기적 발언에 일부 낙폭 만회하는 국면 시현 후, 주 후반, 그간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던 AI 산업에 대한 부정론이 다소 약화된 가운데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 영향 등으로 상승 전환하며 마감